

충남의 미래 100년 밑그림… AI 수도·제2수도권 도약 선언

박수현 도지사 취임 100일

도민 소통체계 개편 등 주요 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시간을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진 '양종옥전(良種沃田)'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AI 수도'이자 '제2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충남의 목은 과제를 진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하는 충남'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든 사자성어 '양종옥전'을 제시하며 "튼실한 씨앗을 고르고 그 씨앗을 뿌릴 비옥한 밭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도민 소통 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혁신,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취임 후 '통하는 도지사실 추진 계획'을 결재하고, 시군 방문 프로그램인 '충남통행'을 통해 도민 건의사항의 처리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주요 도정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구축과 제2수도권 도약 등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과정과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3년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박 지사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파스 착공 시기를 한 달 앞당겼으며, 5년간 중단됐던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공사도 내년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지역 67조 원 규모 투자와 당진 1조 2405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도내 8개 시군 27개 기업의 1조 5303억 원 투자유치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전력·수력·인력의 '3력 혁신'과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3대 균형'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복지·의료·

교육과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도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초광역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감을 낸다.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50개 유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대한민국 AI 수도와 함께 '힐링 충남'을 제시했다. 서해안과 산림, 백제 역사문화, 온천과 종교유산 등 지역 자산을 연계해 수도권 2500만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충남은 제2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회의 땅이자 바쁜 일상에 지친 수도권 시민을 안아줄 안식처"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여유와 쉼을 선물하는 힐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에 임하는 각오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제시하며 "민선 9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충남의 100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강림중공업과 860억 투자 협약

창원시는 12일 시청에서 강림중공업과 86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신규 고용 150명 창출 계획도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운 창원시장, 신한성 강림중공업 부사장이 참석해 투자 이행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림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새로 짓고 선박용 보일러와 신규 개발 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자가 늘어나는 수주 물량과 신규 제품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무안산 군고구마 페이스트

스타벅스 가을 라떼로 재탄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군고구마 가공식품이 카페 음료의 재료로써 사용되어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무안군은 무안군 융복합센터에서 가공한 무안 군고구마 페이스트가 스타벅스 가을 시즌 음료 '카스텔라 고구마 라떼'의 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에는 올 상반기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원료로 무안군 융복합센터에서 가공한 유기농 100% 군고구마 페이스트가 사용됐다. 해당 페이스트는 대형 식품기업에 납품된 뒤 스타벅스 시즌 음료 원료로 공급돼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무안(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12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안동 특수관리 의약품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안동에 의약품 생산거점 구축

2030년까지 총 1750억 투입

안동시-네오켄바이오 등과 협약

경북도가 약 1750억원을 투입해 안동에 헴프 재배부터 원료·원제의약품 생산, 품질·안전관리까지 연결하는 특수관리 의약품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12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안동시, 네오켄바이오,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생산시설은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원료 의약품 시설은 유럽연합 의약품 제조·품질

질관리기준(EU-GMP)에 맞춰 구축하고 원제의약품 시설에는 위탁개발생산(CDMO) 라인을 설치한다. 재배·이동·보관·제조 과정에는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한 통합관제와 이력관리 경험을 적용한다.

안동은 2024년 6월 포항과 함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됐다. 경북도는 2021~2024년 약 468억 원을 들여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실증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CBG·CBC·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로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영양군, 숲 보전 연계 생태관광 모델 구축

경북생명의숲과 업무협약 체결

영양군이 지역의 산림·생태자원을 관광과 환경교육에 활용하고 숲 보전·복원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생태자원과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숲 여행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영양군은 13일 군청에서 (사)경북생명의숲(상임대표 김민정)과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및 숲 보전·복원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협력의 중심에는 영양자작나무숲과 국제탐하늘보호공원 등 지역의 대표 생태자원이 있다. 영양군은 경북생명의숲이 보유한 전문성을 접목해 생태교육과 숲 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숲 보호와 복원 활동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양 기관은 산림생태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숲 여행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청송군,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축제 홍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청송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청송사과와 관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며 전국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로운 홍보에 나선다. 군은 제20회 청송사과축제를 앞두고 14일부터 지역 대표 캐릭터인 '청이와 송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선착순 7만 5000명에게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모티콘은 '지금 청송! 청송 사과축제'를 주제로 제작됐다. 청송사과의 친근한 이미지를 일상 속 소통수단에 접목해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송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주왕산과 청송정원 등을 캐릭터와 함께 담아 단순



카카오톡 '청이와 송이' 이모티콘.

한 축제 홍보를 넘어 청송의 자연경관과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모티콘은 일상 대화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구성됐으며, 카카오톡에서 '청송군청' 채널을 추가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포 인원은 선착순 7만 5000명이며, 다운로드한 날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에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개소

금융에 블록체인·AI 기술 접목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술을 금융에 접목해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시설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문을 연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II) 22층에서 '부산블록체인·AI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테이프 절단, 경과 및 발전전략 보고, 인사발, 축사, 기념촬영, 현장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II) 23층에

전용면적 229.54㎡ 규모로 조성된 연구센터는 현장 맞춤형 전문 교육, 기업 주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자문 및 개념증명 등을 수행한다. 특히 현금융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과정) 운영을 병행하고, 디지털금융 분야 실무형 교육과 지·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블록체인과 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금융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며 "연구센터가 대학의 역량과 기업의 수요를 잇는 핵심적인 디지털금융 기술 양력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화성특례시가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포럼'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운영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과 신규 정책 발굴, 주요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등을 맡는다. /화성(경기)=김예원 기자 ywon@

남양주시

왕숙산단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남양주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에 참가해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미래산업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전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종합 전시회로, 올해는 약 500개 기업이 참여해 1, 10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요 투자 강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